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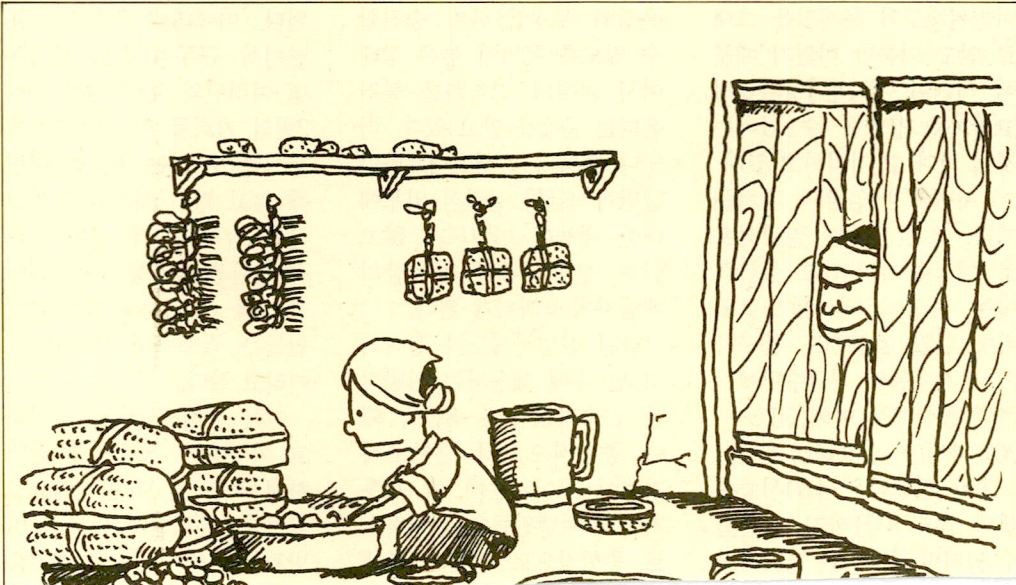
■ 결혼과 여성의 지위 - 사랑법의 세대차 ㉠

여성 성체험의 역사, 출산의 도구로부터 불감증까지

요즘의 연인들은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성생활을 함께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곤 한다. 사랑과 성, 그에 대한 제도적보장이 한데 어우러진 연애결혼은 이 시대의 이상적인 사랑법이기도 하다.

이 사랑의 규범을 위해서 많은 남녀들은 결혼할 애인을 만들기에 열심이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얘기될 만큼 남녀간 사랑의 감정은 보편적인 정서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서도 여성들은 각 세대별로 독특한 성과 사랑의 방식을



**이 할머니의 성은
남녀간의 은밀한 감정
교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피임 같은 것도
안중에 없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성' 적인 의미보다는
출산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구리는 이미 해부가 시작되었다(하권 55쪽)

“그는 아내의 잠옷을 벗기고 속옷도 벗겼다. 적당히 애무도 해주었다. 젖가슴과 아랫배... 아내의 주검같이 누워 있건만, 찬수는 그런 아내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순서를 지키는 모범생처럼 자신의 발기한 성기를 아내의 질 속으로 넣었다.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한다. 아내에게 쓸데 없는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찬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몇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태경의 질 속이 메마른 것 같았다(상권 208쪽)”

애인에 의한 새로운 탄생

남편의 외도로 그나마 습관처럼 남아 있던 애정마저도 증발하고 난 다음의 성관계는 남편의 주도에 끌려가는 아내의 수동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편은 ‘모범생’처럼 어떤 규칙을 따라 아내의 몸을 더듬고 아내는 ‘해부되는 바닥의 개구리’나 ‘주검처럼 누워 있는’ 사물로 존재한다.

태경이 사물에서 인격체로의 새로운 탄생은 남편이 아닌 애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태경은 이 애인과 만나면서 자신의 감정이 존중되며 자신의 가능성이 소중한 것으로 대접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성관계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김효선 기자>